수묵 위에 펼쳐진 〈금강경〉

강미선 '수묵, 쓰고 그리다' 展
서울 금호갤러리 2월 6일까지

'금강경-지혜의 숲' 22m 대형작품
한지조각 5149개로 〈금강경〉 완성
글 · 그림 경계 자유롭게 넘나들어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 2021, 한지에 수묵, 350x2200cm.



부분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묵(水墨)으로 표현한 〈금강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 수묵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강미선 작가가 2월 6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초대전 '수묵, 쓰고 그리다' 를 개최한다.

오랫동안 한지의 물성과 먹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온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지혜의 숲' 등 3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한지를 쌓아올리고, 표면을 두드려 한지 고유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일상의 풍경과 사물을 담담한 먹빛으로 그렸다.

〈금강경〉 5149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대작 '금강경-지혜의 숲' 은 전체 크기 세로 3.5m, 가로 22m의 대형 설치 작품이다. 강 작가는 세로가로 11cm 한지 조각에 〈금강경〉의 글자 한 자씩을 써서 5149자의 〈금강경〉을 완성했다. 강 작가는 매일 적게는 몇 장에서 많게는 수십 장씩 써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의 과정처럼 단단하면서도 밀도 있는 지지체인 자신만의 한지를 만들고, 그 위에 글을 쓰고 다시 먹물로 선염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랜 시간 정성스러운 작업을 통해 다듬어진 종이 위에 새겨진 글자는 작가가 바라는 일상과 실존, 예술이 하나가 되는 오늘날의 서(書)의 본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람객들은 바위산에 새겨진 글씨와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금강경〉을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공간 속을 거닐며 잠시나마 사색과 사유의 시간과 마주할 수 있다.

'관심' 연작에서는 수묵의 농담이 자유로우며 풍부한 먹빛의 느낌은 일상의 따뜻한 순간을 떠오르게 한다. 강 작가는 '관심' 을 주제로 추억이 깃든 물건이나 투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다. 일상적인 것들의 표현은 작가의 눈으로 보고 사생하는 것에서 출발함으로써 소박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들은 작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정감의 대상들로 결국 이러한 풍경과 정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대상을 넘어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미한다.

'서가도(書架圖)' 에서는 전시장 벽면을 하나의 책장 형태로 구성해 사물과 화훼, 과일 등을 그린 다양한 크기의 여러 작품을 자유롭게 배치했다. 작가는 집 뒤뜰에 계절마다 피는 매화, 국화, 모란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감나무 등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풍경과 사물들을 소재로 삼는다. 전통 장식화 형태인 서가도 형식을 현대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화면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한옥(韓屋)' 연작에서 작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한옥의 기둥과 대들보, 서까래 등 한옥을 이루는 부분적인 요소이다. 굵고 간략한 수직과 수평의 선, 사선의 대각선은 동양화에서 다루는 선의 미적인 특질을 잘 보여준다. 진한 먹의 강한 필선이 만들어내는 채움과 비움의 공간이 흑과 백의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조화로운 균형과 절제의 미감을 전한다.

'무언가(無言歌)' 는 자연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작품이다. 감물은 물을 섞는 양에 따라 수묵의 기법인 담묵에서 농묵에 이르는 농담의 표현이 가능한데, 화면 전체에 깔린 황갈색의 색상은 묵(墨)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낸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듯 작가는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의 작업은 더욱 확장된 세계를 보여준다. 소소한 풍경과 정감있는 정물을 담묵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관심' 연작과 강한 묵의 필선을 통해 새로운 조형미를 보여주는 '한옥' 연작, 명상을 주제로 자연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무언가(無言歌)' 등의 신작을 보여주고, 전통 서가도 형식을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구현한 '서가도' , 수행의 시간을 통해 완성된 대작 '금강경-지혜의 숲' 등 색다른 형태의 수묵의 세계를 보여준다.

강미선의 작업은 '한지' 라는 재료를 '재료' 가 아닌 '의미' 로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한지라는 평면은 단순한 기능적인 쓰임새를 벗고 창조를 전제한 '공간' 으로 정립된다. 종이라는 수용성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품는 것이다. 강 작가의 작업은 그 공간에서 시작된다. 단순한 바탕과 그 위에 더해지는 일정한 작업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존으로 구현된다는 점이 '강미선의 수묵' 이다.

'수묵, 쓰고 그리다' 란 표제는 단순한 서화동원(書畫同源)의 형식적 환원을 시도한 것은 아니다. 바탕과 그 위에 더해지는 수묵은 단순한 표상의 체계가 아니다. 바탕과 그 위에 더해지는 수묵은 행위와 물성의 만남이라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 그 고유의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강 작가의 '수묵' 은 글과 그림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묵화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강미선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중국남경예술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5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 수상했다.

기와에 담은 관음보살 42수

이운정 관세음보살 42수 기와전
'평와(平瓦) 위에 핀 42수' 갤러리 마니 1월 30일까지
관세음보살 42개 손 기와에 그려
불화 개념으로 단청 기법 접목해



보인수



화불수



화궁전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에 등장하는 천수관음의 42개 손을 기와에 재현한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불모 이운정이 1월 30일까지 경주시 갤러리 마니에서 천수관음 42수 기와전 '평와(平瓦) 위에 핀 42수' 를 열고 있다.

이 작가는 2008년 전통문양 부채전 이후 세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 선재동자, 정병, 버들가지 등의 〈천수경〉 속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바탕으로 한 기와 작품 42점을 선보인다.

"관세음보살은 많은 보살 중에서 가장 친근한 보살입니다. 무수한 중생을 돕기 위해 두 눈과 두 손이 부족하여 천 개의 손에 천 개의 눈을 지녔습니다. '천(千)' 이란 상징적인 것인데, 경전에서는 42개의 손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에는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바로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해탈시켜 준다고 전한다.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많은 손이 필요하다. 관음보살의 '42수' 는 그 상징이다.

이 작가는 기와등과 기와골이 어우러진 지붕이 눈과 추위를 막아주듯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큰 위신력으로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와전' 을 마련했다. 이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천수관음 42수를 그려왔다.

갤러리 마니의 개관 기획전인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가 선보이는 기와그림은 불화의 개념으로 단청기법을 암키와(平瓦)에 접목한 작품이다.

이 작가는 수많은 기와가 모여 완성되는 지붕이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위신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보호해주는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불화나 단청의 바탕재는 주로 장지 또는 비단 내지는 목판 등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언젠가 세월의 흐름에 훼손될 수 있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하지만 전통 기와는 보존만 잘 한다면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다. 이 작가가 기와를 바탕재로 선택한 이유다.

이운정 작가는 동국대학교 미술학과(불교미술전공)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18세기 불국사 대웅전 내부단청에 대한 연구' 를 썼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단청 1157호,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 4568호이며, 전통문양지도사 1급 보유자다.

현재 한국전통문양교육원 원장, 아도문화진흥원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단청 외래교수이다. 저서로 〈금난 이운정의 사불 사경 시리즈 1, 2권〉, 〈금난 이운정의 선따라 마음따라〉, 〈금난 이운정의 사불 시리즈〉가 있다.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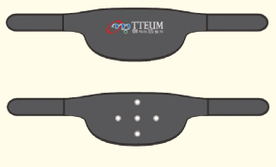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